

<技術編>

고무技術盲點의 一考察

日本 神戸市 아들러社

柏木一之

1. 序 言

筆者는 至今까지 無數한 技術盲點의 陷穿에 빠져서 不良品을 増經験이 있으나 至今에 이르러서 生覺하면 不良品이나와서 當然하다고 생각되는것을 技術의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일을하고 있었던것에對한 代價에 不過함을 알수가 있다.

40년의 經驗으로부터 배우게된것은 理論的으로 또 技術의으로 過誤없는 일을하고 있으면 不良으로는 되지 않는다고하는 極히 當然한 真理 그것이다.

即 理論의이며 技術盲點만 없다면 不良으로는 되지 않는다고하는 信念을 갖고서 不良 0%를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고무는 理論대로 되지 않는 곳에 技術의難點이 있으며 고무와 不良은 不可分離의 사이에 있다고하는 至今까지의 觀念을 全面的으로 否定할수가 있게되어서 後輩技術者들에게 力說하고자 한다.

勿論 이점에對해서 反論이 있을 것을 覺悟하고 있는 바이나 40년의 技術經驗에 依한 技術開眼이라고 할까.

大胆하게도 不良 0說을 提唱하는 바이다. 또한 고무技術에 对해서 5個의 고무技術의 信條下에 고무의 技術과 써씀하고 있다.

参考로 그 信條를 記述하여서 技術盲點의 一考察에 言及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記述하는 技術盲點이란 平素作業에 있어서 瞬時의 不注意가 理論에 안맞는 作業을 한것으로 되어結果의으로 不良으로 되어서 現實의으로 多大한 損害를 입는 일이 있다. 即 技術盲點의 미쓰를 犯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不過하다.勿論 技術盲點에 对해서는 平素行해지고 있는 事項을 中心으로 言及해보고자 한다.

5個의 고무 技術信條

- 1) 고무의 技術은 深淵이지만 理論의이다
- 2) 바른 技術에는 不良은 없다
- 3) 技術의 盲點은 奇術의인 意外性이 있다
- 4) 고무 技術에는 定量的再現性을 要한다
- 5) 技術의인 觀察및考察로부터 바른 技術이 생긴다

2. 고무와 混練

會社에 따라서 生產品種이 다른關係로 使用하는 고무가 相違하는 것은 說明이 不要할 것이다.

戰前은 天然고무가 많았으나 最近처럼 小工場에서도 SBR CR NBR BR IR IIR 등이一般的으로 使用되게 되고 보면 그만큼 技術盲點에 依한 트러블이 많아진 것은 事實이다. 고무選擇의 잘못, 混練方法의 잘못 등當事者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現實의으로는 問題를 惹起하여 工程中에 不良化하는 경우 또 製品納入後에 不良한 점이 發見되어서返品으로 되는 경우 등 實際面에선 잘알수가 없는 技術上의 盲點에 言及했을 때를 것이다.

以下에 體驗한範圍이긴 하나 技術盲點의 諸問題에對해서 記述해보기로 한다.

2.1 고무의 選擇

使用하는 고무의 選擇을 잘못하여서 製品이 不良해지는 境遇가 있다.

設使 製品에 問題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良品取扱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例를 들면 臺灣에선 美色의 고무반드를 IR로 製造하여 使用되고 있으나 日本에선 IR의 고무반드는 商去來上 對象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天然고무의 代身에 IR을 使用해서 고무반드를 製作해도 優秀商品으로 取扱해 주지를 않는다.

即 원가절감의 意圖로 NR의 代用으로서 IR를 選擇해도 失敗로 끝날 것은 明白하다.

또 原價節減의 目的으로 조금이라도 配合費用을 줄여 生覺으로 粉末고무, 再生고무, 合成고무의 格外品을 例示하면 NBR, CR, EPDM 등의 格外品을 使用해서于先 원가절감에는 成功하고 있으나 意外로 여러 가지의 트러블을 야기하고 있다.

格外品을 使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使用하는 技術者가 格外品의 性格을 看過해서 無條件으로 使用하고 있는 點에 있다. 再生고무에선 歷史가 짧은 CR, NBR의 再生고무에 많으며 NBR, CR의 格外品에 對해

서 그 예를 볼수있으나 再生고무타든가 格外品에 對해선 入荷品에 대해서 試驗로오루로 混練했을時의 고무의 狀態 고무의 무우니이 値 및 基礎配合에 依한 物性值를 求해서 入荷고무에 異變이있나 없나를 試驗해서 使用하면 問題는 안일어나나 無條件으로 使用하는데 技術盲點이 있다. 再生고무도 格外品을 使用해서 無妨하나 無條件으로 使用할것은 못된다. 또 耐油性이 란말에 高니트릴을 使用한것 까지는 좋으나 中高니트릴을 使用한 製品에 比較해서 實用面에서 問題가 안될 程度로 나쁜製品이 있다. 爪킹類에 그例가 있으나 耐油性이라 고 하는 示方書에 사로잡혀서 使用條件에 依한 本質을 技術者가 不理解하고서 고무의 選擇을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서 壓縮永久歪의 思考方式이 不足하고 있음을 實用面에 있어서 優劣의 差를 두는 原因으로된다.

變壓器의 爪킹을 CR로만들어도 簡單하게 規格을 滿足시키지 않으나 中高니트릴을 使用하면 簡單하게 規格을 滿足시킬수있다. 要컨데 使用하는고무를 잘못 선택하면 製品이 不良해진다.

따라서 新製品을 만들때에 NR로 하느냐 SBR,CR로 하느냐로, 고무를 선택하는일이 重要하며 또 CR 일것 같으면 어느品种의 CR로 하느냐. EPDM일것 같으면 이 메이커의 어느品种을 사용하느냐가 問題로된다.

또 EPDM에 있어서 入荷고무의 色調가 다를경우, 낱세가 다를경우에 특히 注意가 必要하며 混練고무의 무우니이 値가 相違해서 또 加硫고무의 物性值가 相違해서 問題를 야기하는 일이 있다. 따라서 入荷고무의 受入検査는 技術的 見地에서도 必要하다.

또 SBR 1778N와 SBR 1778J는 同一한것이라고 生覺해서 簡單하게 代用하나 代用할때에는 반드시 試驗해서 作業上의 異狀이없는가 사이트의 爬結이變하지 않았는가 加硫時에 異變이 생기지 않는가를 調査해서 使用할것이 必要하며 簡單하게 代用하면 技術的으로 問題를 야기할 可能性이있으며 實實 問題로된例도 있는 點으로해서 고무를 同一視하는 것은 無理하다.

이 實實은 CR이고 NBR이고 間에 同樣이며 메이커가 달라도 同系統의 고무라는것만으로서 無條件으로 代用하는 것은 問題를 야기할 可能性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2 고무의 混練

고무混練의 경우 製品에 따라서 素練고무粘度에 對해서는 어느範圍內의 무우니이 値를 使用하는것이 混練中에 타지 않는 技術的要點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自然加硫用의 고무를 混練할경우 混練고무를 一晝夜 放置해서 PX타든가 PZ,EEC와 같은 超促進劑를 混入할 때 注意事項으로서 回轉比가 작은 로오루機를 골라

서 冷로오루로 물의 발브를 全開해서 混練할것이 重要하며 混練고무의 무우니이 値가 높을時, 水冷이 나쁠때 摩擦熱때문에 溫度가 上昇하면 로오루에 감겨있는 고무의 爬結이 보고있는 동안에 타버리는 現象을 야기한다. NR의 素練고무의 무우니이 値가 40~45ML¹⁺⁴(100°C)의 경우는 作業中에 고무를 태우는일은 없으나 混練作業이 變했을時에 問題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例를들면 로오루混練을 나이더어 混練으로간 고무에 超促進劑를 一晝夜熟成한 고무에 混練해 넣으면 短時間에 타는 現象이 일어난다.

原因은 나이더어로 素練한 고무의 무우니이 値가 68 ML¹⁺⁴(100°C)이었음이 立證되어 素練不足에 依한 發熱이 크며 그 热害에 고무의 燒却이 發生한것이다.

勿論 나이더어가 나쁜것은 아니고 粘度의 確認도 없이 作業한 것이 技術의盲點으로 되어있다. 氣溫이 낮은 겨울철등은 作業中 고무가 타는일은 적으나 한여름이 되면 우수한 作業者가 아니면 失敗한다. 즉 熟練자는 무우니이 粘度計는 없어도 40~45ML¹⁺⁴(100°C)의 低무우니이 値의 고무에 素練하는 技術을 몸에 익혀둔것 및 超促進劑의 投入도 均等으로 撒布할것을 銘心하고 發熱에 依한 热履歷이 스크오치 現象을 不惹起하는 混練方法을 몸에 익히고 있기때문이다.

또 CR,NR,NBR에 카아본블랙 HAF타든가, IISAF ISAF와 같이 粒子經이 작은 카아본을 50%以上配合한 고무를 混練時에 고무를 스크오치시킨다. 作業者는 細心한 注意를 기울이고 있으나 實實의 問題로서 고무를 고실게 한다(스코오치化). 混練方法이 나쁘다든가, 注意가 不足하다든가, 作業者の 경험이 타든가 技術에 依存하고 있어도 스크오치는 絶無로된다고는 할수가 없다. 素練 고무의 무우니이 値, 로오루表面 溫度, 冷却水의 溫度, 室溫, 로오루의 크기와 前後로오루의 回轉數와 그의 比로오루의 間隔, 고무量등을 決定해서 混練의 狀態를 잘 觀察하면서 混練하는것인데 고무爬結의 光澤의 程度, 特有한 낱새등에 依해서 混練程度를 批判할 能力を 몸에 익힐것이 必要하다.

混練作業中에 고무가 스크오치 現象을 일으키고 있는 일을 看過하고 作業을 繼行해서 다음의 加工工程을 經해서 製品으로 되어서 檢査係에서 不良이 發見된다.

全然 不注意의 一言으로 表現되나 實實은 技術能力의 不足이 原因하고 있다.

또 盛夏에 CR의 混練中 고무가 스크오치한 原因에 對해서 理由를 물게 된 일이 있다.

오랫동안 同一한 混練方法으로 混練하고 있으나 한番도 問題를 야기한일이 없었다고 한다.

勿論 同一條件일것 같으면 問題를 야기시킬 要素가 全無하나 實實의 으로 스크오치한 것은 NR의 브랜드配

合때문에 素練이 不足해서 發熱이 커었거나 冷却水의水量이 不足했거나 한 原因이 반드시 있음을 說明해서 至今까지와 조급도 變한 作業方式을 取하지 않고 있는가를 調査한즉 官廳으로부터의 節水의 依賴에 依해서 上司로부터 節水에 協力토록 指令이 있어 물의 발보를 조아서 作業한 結果, 冷却不足에 依한 스크오치 現象이明白해졌다.

발보를 全開해서 立會해서 混練한즉 異常 없이 混練이 되었음을 說明할 心要조차 없다. 발보의 조으는 法하나가 스크오치 現象을招來하는 原因으로되어 그것이 技術盲點으로된 例이다.

CR, NBR의 混練고무를 水冷한後 시이트를 重첩시켜서 放置中에 스크오치 現象을 일으켜서 使用不能으로 될 경우가 있다.

勿論 混練고무의 溫度, 水槽의 溫度, 浸漬時間, 水冷後의 溫度, 시이트의 두께 등 作業基準에 더욱 確實한 作業管理下에 作業해도 스크오치 現象을 일으키는 境遇가 있다.

現實的으로 스크오치 한 事實로해서 여러가지 理由를 說明當하고 있으나 混練고무의 热傳導度를 計算해서 放熱이 적게保有하는 热의 履歷에 依한 스크오치 現象을 說明當하는 技術者는 以外로 적으나 그려한 곳에도 技術의 盲點이 있다.

理論的으로도 热傳導度를 無視하면 意外의 때에 스크오치 現象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技術的으로 바른 作業을 하고 있으면 고무가 스크오치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반바리이로 混練할 경우에도 混練고무의 内部溫度를 115°C 以下로 混練하는 것은 CR의 경우는 必要條件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混練고무는 20°C 以下의 冷房室中에 저장할것이 要望된다.

热傳導가 스크오치 現象에 影響하는 것은 다음의 한例로부터 充分히 說明이 可能하다. 即 夏期니이더로 混練한 CR 고무의 브록크를 暫時放置해서 酸化亞鉛, 加硫促進劑 EU를 混練할때에 스크오치 現象을 일으키나 連續的으로 作業할 경우는 簡單히 酸化亞鉛, 加硫促進劑 EU는 混練이 可能하며 混練고무는 시이트에 내어서 水槽에서 水冷하면 스크오치의 念慮는 없다. 热傳導度에 依한 热이력으로부터 說明하면 스크오치의 問題는 잘 理解할 수 있다.

따라서 고무의 热傳導度와 시이트의 두께表도 技術의 으로 必要한 數值이다.

3. 配合과 藥品

고무製品의 表面에 油分이 浮出되어서 미끈거리는 觸感을 준다.

또 겉은 製品의 表面이 褐微粒子의 藥品이 浮出되어서 黑色製品이라고 생각이 안들 경우 조차 있다. 前者は 브리이드現象이며 後자는 브룸現象인 것은 說明할 나위 조차 없다.

브리이드의 境遇는 加硫한 製品을 손으로 만지면 粘着性을 느낀다. 또 브룸하는 製品에 對해서는 黑色의 경우와 加硫後 손가락으로 눌렸을뿐이라도 흰 指紋이 浮出할 경우는 簡單히 브룸現象은 發見되나 製品의 納入後 브룸해서返品으로 되는 경우 조차 있다. 그 原因은 配合의 方法, 配合藥品 및 加硫條件에 依하나 그것들中 어느것인가가 技術盲點으로 되어있음을 看過하고 있다

브리이드할 경우는 軟化劑, 例를 들면 스피클油, 나프텐油 등을 多量配合한 製品으로 軟化劑의 品質에關係없이 코스트만을 생각해서 軟化劑를 使用할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NR, CR, NBR에 使用하는 軟化劑는 各各 相違하여 있음은 說明의 餘地조차 없으나 CR SBR BR 등에 使用하는 プ로세스오일에 對해선 포리머와의 相溶性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런 意味로부터 아니린포인트의 數值을 調査한뒤에 プ로세스오일을 使用해야 할 것이다.

配合의 内容은 省略하겠으나 나프텐油의 아니린포인트 90°C以上의 것을 25% 以上 使用하면 브리이드現象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나 70°C以下의 것을 사용하면 브리이드하지 않는다. プロ세스오일의 選擇方法에 對해선 品質, 코스트, 메이커 등을 考慮해서 決定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油의 分析表로부터 CA%, CN%, CP%를 調査하여 나프텐油의 境遇는 CN%의 큰것, 아로마틱의 것은 CA%를 파라핀系의 오일에 對해선 CP%의 數值의 큰것을 選擇할것과 아니린포인트의 數值의 큰것은 相溶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프텐오일의 경우는 70°C를 基準值로 생각해서 軟化劑의 選擇方法의 한方法으로 하고 있다. 그外에 考慮할 點은 配合實務上으로부터 오일의 粘度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프로세스오일에 對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使用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現實的으로 브리이드製品을 볼때에 プロ세스오일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다.

石油속크의 痛棒을 얻어맞았든當時, 고무藥品에 對해서 여러가지로入手困難한것이 생겨서 代用品을 使用해서 生產을 繼行하고 있었든 會社가 多數를 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現實的으로 여러가지의 트러블을 야기한 實例를 見聞했는데 無條件으로 代用한것이 트러블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原因이라고 生覺된다. 고무의 技術은 그렇게 簡單한 것은 아닙니다. 不拘하고 簡單하게 處理한것이 技術盲點으로 不良의 原因, 트러블의 原因으로 되어 있다. 技術에는 恒常假定과 確認을 해서 일을하면 失敗하는 일은 없다.

即入手不能한藥品의 代用에 對해서는 理論的으로 代

用해서 問題가 없을까, 어쩔까 검토해서 代用해 도좋다는 假定을 定하고 代用약품에 對해서 試作해서 問題點이 있나 없나를 確認하면 트러블을 야기하는 일은 없다. 納期에 늦어진다든가, 試驗할 必要조차 없다고 簡單하게 代用할 것을 決定하는 곳에 技術의 으로 失敗를 하는 要因이 있다.

例를 들면 카아본블랙의 SRF가入手困難해되면 우선 쉬운데로入手可能한 타일의 카아본 블랙을 使用해서 여러 가지의 點에서 트러블을 야기한例, 또 헤친이入手困難해되면 無條件으로 他社제 진을 使用해서 不良이 急激하게 불은例 등 其他的 약품에 對해서의 代用이 여러 가지로 트러블을 일으킨 例를 見聞하고 있으나意外로 트러블의 原因에 鈍感해서 不良對策에 時間을 浪費하는 技術者가 많다.

指定한 프로세스油가 入荷안되므로 簡單하게 油를 간다. 마그네시어의 브랜드를 간다. 老化防止剤를 간다. 그려 할때에 技術의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 全然 小工場의 인 思考方式으로 處理하고 있다.

요즈음 技術者들은 工夫를 잘하고 있는데 感嘆하게 된다. 加硫理論, 테오로지이, 高分子의 劣化理論, 포리머 어브랜드 등 多彩로운 學究의 工夫를 하고 있으나 生產技術에 對해서의 技術의思考法, 技術의 인 現象에 對해서의 관찰法은 유치하기 때문에 理論의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反해서 簡單하게 處理 可能한 問題에 對해서 틀린處理를 해서 各種의 技術의 트러블을 야기하고 있다 即 技術盲點의 犯과오를 犯하고 있다.

配合약품中에는 混練作業中 로오루에 對해서 고무가 不離하는 것. 또 로오루로부터 떠서 混練作業에 困難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은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勿論 熟練者는 로오루의 溫度調節에 依해서, 또 로오루의 間隔을 加減해서 混練作業性을 是正하고 있으나 그래도 손을 쓸여가가 없는 경우가 있다.

로오루의 回轉數, 回轉比에도 달렸으나 하아드크레에는 포리머에 對해서 30~40% 以上으로 되면 付着해서 作業性이 惡化되며 白카아본으로 40~50% 以上으로 되면 混練作業中 고무가 뜨게된다. 따라서 로오루의 性格을 잘 안 以後에 配合약품의 量을 결정하지 않으면 作業上의 트러블이 일어난다.

크레에, 白카아본의 配合量은 40% 以下를 使用하는 것도 長年の 體驗으로부터 習得하게 된 配合量일지도 모른다. 또 이들의 약품에 分散剤를 使用하면 付着의 問題, 浮上의 問題가 완화되기 때문에 DEG(디에치엔그리콜)이一般的으로는 1~5% 使用되고 있다.

但, 加硫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략하고서 使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무의 혼련作業中 여러 가지의 現象이 일어나는데

卓上論에서 이以上 理想的인 配合은 없다고해도 그것은 紙上에 表現한 配合의 設計에 不過하다.

混練生地의 表面상결의 狀態. 두우니이 値의 問題, 加工性의 問題등은 實際로 混練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따라서 配合表는 試驗로 우루로 混練하면서 軟化剤의 増減이나 카아본量의 補正을 한다 또 分散剤로서 DEG 바든가 카아본블랙일 것 같으면 Structol WB 212를 追加하는 등 混練하면서 配合을 할것이 所望스럽다.

配合表을 써서 係員에게 混練시켜서 그 고무의 物性值가 規格을 滿足시키고 있으므로 OK해서 生產으로 옮긴 時點에서 여러 가지로 問題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오루의 作業性, 시이팅했을 時의 表面의 상결, 空氣의 有無, 加工裁斷時의 나이프의 切斷性, 生地의 粘着性, 고무의 流動性, 영그스트랭스, 加硫曲線에 依한 加硫의 動態 및 加硫速度등 生產上必要한 要素를 滿足시키는 配合은 卓上計劃書의 配合에선 困難하다.

따라서 卓上配合表는 配合案으로 混練하면서 修正해서 配合表를 作成하여 試驗結果 規格值를 滿足시키며 또한 作業性에 問題가 없음을 確認해서 配合表를 作成하는 것이 옳다고 生覺한다. 配合藥品中에서 스테아린酸은 加硫促進助劑, 카아본블랙의 分散, 軟化剤, 滑剤燃燒防止剤, 離型剤등의 目的에 使用되고 있으나 NR과 CR에 對해서 軟化剤로서의 樣相에는 變함이 없으나 加硫促進助劑로서는 NR과 CR과는 相異한 樣相을 示顯하는 것이다.

即 스테아린酸은 酸性物質로서 反應해서 NR의 경우는 加硫의 動作을 遲延시거나 CR의 경우는 加硫의 動作을 速하게 한다. 스테아린酸은 軟化效果가 있으며 軟化剤로서 使用할경우는 加硫고무의 硬度가軟해진다고 생각이되나 加硫하면 硬度는 上昇한다. 따라서 스테아린酸은 加硫硬化剤이다. 그리세린의 加硫硬化剤의 樣相과 治似하다. 스테아린酸은 NR에 對해서는 0.5%에서 軟化效果는充分히 안나타나나 1% 使用하면 軟化效果에 依해서 混練生地의 상결이 嘉고려워진다.

實際配合에 있어서 1~2% 使用되고 있는點은 促進助劑와 NR 그自體의 軟化剤로서 使用되고 있는點에 있으나 CR의 경우는 0.5%의 스테아린酸으로 滑剤로서充分하며 시이트生地의 상결도 嘉고려워지며 0.5%로充分하다는것이 理解된다.

NR에 對한 스테아린酸의 反應을 表示한것이 表1이며 基本配合으로서 RSS #3 100, 亞鉛華 3號5, 스테아린酸變數 0, 0.5, 1, 2促進剤 DM1, 老化防止剤 D1, 硫黃3 (藥品의 브랜드는 省略한다) 加硫條件은 150°C X20'으로 프레스加硫한 物性值를 求했다.

表 1로부터 스테아린酸은 軟化效果가 있으며 軟化剤이나 加硫軟化剤는 아니고서 加硫硬化剤임이 證明되고

있으며 長靴加硫時 脊體가 부러지는 現象이 일어날 때 스테아린酸을 追加해서 防止했다고 하는 保證이 引張應力이 增加하고 있는 點으로부터도 證明이 된다. 加硫의 動作은 늦어지나 加硫의 speed는 使用量의 增加와 함께 빨라진다. 圖 1은 태오메에터에 依한 加硫曲線을 表示한다.

CR에 對해서 加硫의 動作이 速해지며 加硫에 依하여 스테아린酸의 增加와 함께 硬度는 上昇한다. 表 2는

表 1 스테아린酸의 NR에 대한反應

	1	2	3	4
硬度 H_S	31	32	33	34
$M_L^{1+4}(100^\circ C)$	18	17.5	17	16
引張強度(kg/cm ²)	195	226	230	232
伸率(%)	800	780	770	760
300%引張應力(kg/cm ²)	16	18	20	22
10% 加硫時間	6'36"	7'12"	7'48"	8'00"
100% "	19'0"	18'12"	18'1"	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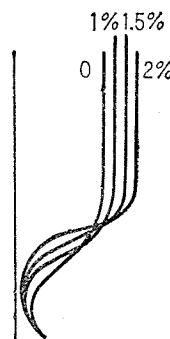


圖 1 스테아린酸의 NR에 미치는 加硫曲線

表 2

스테아린酸(%)	0	0.5	1	2
5p, up	9'12"	9'0"	8'50"	7'36"
35p, up	13'14"	13'5"	12'58"	12'38"
H_S	41	42	43	45

註) 配合은 CR100, 酸化亞鉛 5, 마그네시아 4, 老防 D1 促進剤 NA22.1, 스테아린酸, 變數의 基本配合에 依하여 電氣프레스로 $170^\circ C \times 20\text{分}$ 加硫했을 時의 硬度를 表示한 것이다.

CR配合에 對한 스테아린酸의 영향을 表示한 것이다.

스테아린酸을 使用하면 引張強度가 減少해서 硬度는 低下한다고 생각하는 分이 있는 것 같으나 아마도 軟化剤라고 하는 觀念으로 부터 硬度가 低下한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스테아린酸은 加硫硬化剤로서 反應하는 것이다.

고무의 反應은 溶液反應은 아니고서 固體反應이며 配

合劑의 種類에 依해서 複雜한 反應이 나타나고 있는 關係와 真實을 理解하는 것은 어렵다. 고무는 固體酸, 固體塩基로서 加硫反應이 진척되며 스테아린酸은 固體酸으로서 反應하는 것에 留意해서 스테아린酸을 使用할 것이 所望스럽다. 配合藥品은 0.01%의 少量이라도 均等한 分散이되나 스테아린酸의 配合%로서 1%라든가 2%처럼 慣用值를 使用하고 있는 點에 아직도 配合技術上 研究의 余地가 있는 것 같으며 今後의 研究에 依해서 스테아린酸 1.15%라든가 또 1.48% 等의 數值가 보일 것 같으며 從來의 惯用值에 依한 配合보다 技術的이며 頭腦的인 配合表가 나타날 것을 热望하는 바이다.

4. 水素이온濃度

配合藥品의 水素이온濃度를 考慮해서 使用하지 않으면 뜻밖의 트러블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고무의 固體酸이 固體塩基에 영향해서 加硫의 動作이나 加硫速度에 나타나서 製品에 따라선 트러블을 일으키는 原因으로 된다.

따라서 配合藥品의 브랜드 또는 메이커의 變更이 트러블의 原因으로 되는 경우 조차 있다. 또 카아본블랙의 타입이 同一하다고 해서 簡單히 變更해 버린다면 가 輕炭이기 만하면 좋다고 해서 無條件으로 變更해서 트러블을 일으킨例를 들게 되나 그것은 水素이온濃度까지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混練의 專門會社에 선 指示된 配合藥品은 絶對로 不變한다는 것을 技術의 信條로 하고 있다.

따라서 委託混練에 對해서 配合藥品으로부터 生기는 트러블은 생 각할 수 없다.

型物製品에서 加硫時의 食出이 줄어는 狀態로 나와서 完成面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加硫의 動作이 빠르며 스크오치한 時點에서 고무가 流動해서 “食出”로서 나오기 때문이며 加硫溫度를 낮추면가 促進剤를 變更해서 加硫의 動作을 늦추면 製品은 좋아진다.

一般用의 型物製品은 高溫短時間加硫가 最近의 傾向이며 그代表의 인것이 인적 손처럼 $200^\circ C$ 에서 1分未滿의 短時間의 加硫가 行해지고 있다.

프레스加硫도 $170^\circ C$ 또는 그以上の 溫度로 3分前後の 加硫를 實施하고 있는 工場도 있으나 促進剤用法의 重要性과 配合藥品의 水素이온濃度를 考慮할 것이 重要하다. 加硫曲線에 依해서 加硫條件를 決定할 경우는 失敗는 없으나 加硫判定機에 依하지 않고서 經驗으로 加硫條件를 決定할 때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圖 2의 A曲線은 加硫의 動作이 빠르며 金型을 프레스에 둔 時點에서 스크오치가 일며 타버리기始作한 고무가 無理하게 流動하기 때문에 食出은 줄어든 形態로

押出되어製品은 不良하게 되나 B曲線처럼動作을 늦게하여金型을 프레스에 두고 壓力を 加해서 空氣抜取를 한後 프레스開始까지의 所要時間에 加硫의動作이 없게끔 늦추는 것으로서 加硫遲延劑의 使用, 水素이 온濃度에 依한 補正 등 여러 가지의 方法이 생각된다.

結論的으로는 加硫曲線의 10%까지의 加硫時間은 늦춤으로써 解決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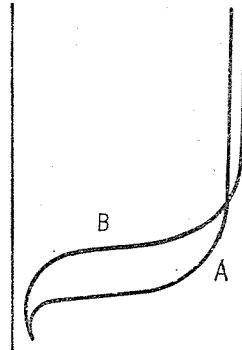


圖 2. 加硫曲線

5. 接着技術

金屬과 고무의接着은 理論적으로도 技術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서 技術者를 놀리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接着不良이나와도 不知不識間에 좋아지며 그것이 또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勿論 加硫고무와 金屬의接着은 더군다나 技術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金屬과 고무 또는 金屬과 加硫고무의 接接着業에서 接着不良은 理論에 不合하는 技術의 過誤를 犯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技術盲點을 除去하면不良은 解消된다. 金屬과 加硫고무의 接着의 作業節次의 一例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은 作業方法이 있다.

1) 金屬面을 츄 又는 荒削에 퍼어로 精誠껏 거칠게 해서 表面을 空氣로 날려서 깨끗하게 한다.

2) 고무의 表面도 거칠은 폐에 퍼어를 가지고 문질어서 고무분을 날려 보내고 틀을로 表面을 쓰려낸다.

3) 金屬面에 케무록크 205를 얼룩지지 않도록 反復해서 칠해서 乾燥한 後 케무록크 220을 칠해서 充分히 自然乾燥시킨다.

4) 0.5mm 두께의 中間 고무에도 고무풀을 칠한다.

5) 金屬과 加硫고무의 中間層에 고무시이트를 插入하여 밸라붙인다.

6) 110°C의 電氣프레스로 3時間加硫한다.

7) 加硫後 고집어내어서 常溫에 冷却할 때까지 錘를 얹는다.

이 作業節次에는 技術盲點이 많으며 接着不良이 나오는

것이 當然한 方法이며 事資金弱과 고무의 接着不良이 있으며 剝離面에 金屬面이 보일 경우는 케무록크 205와 金屬과의 接着이 나쁠 때에 일어나며 黑色 또는 淡黑色의 剝離는 케무록크 220의 乾燥不充分한 경우나 205와 220層間의 接着上의 缺點을 表示하는 것이다.

또 接着用 고무풀의 乾燥가 나쁠 때 其他の 原因으로 接着不良으로 될 경우는 光澤 있는 黑色을 表示하는 것이다. 또 接着良好한 剝離面은 表面이 거칠은 것과 같은 外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느 作業業에 缺點이 있었는가는 剝離面을 60倍의 放大鏡으로 보면 잘 理解할 수 있다.

上記의 作業節次에는 接着不良으로 되는 要素가 있으며 그 技術盲點을 除去하면 接着은 良好해진다. 따라서 技術盲點을 除去한 作業基準에 依한 作業에 變更함으로써 接着不良은 皆無라고 하드라도 誇張이 아닐程度로改善된 것은 事實이다. 改善한 점을 들면 다음의 点을 變更한 것에 不過하다.

1) 金屬面, 加硫고무面을 가는 폐에 퍼어로 表面의 被膜을 除去할程度로 輕하게 거칠도록 한다.

2) 乾布로 金屬의 粉末 및 고무粉末를 除去한다.

3) 金屬面에 케무록크 205를 츄로 輕하게 缺陷部分이 없어지도록 二回칠을 한다. 室溫에서 1時間放置한다 乾燥後 케무록크 220을 205로 칠한 方法으로 二回칠을 하고 1시간 乾燥한다.

4) 케무록크를 칠한 뒤에 接着用 고무풀을 2회, 너무 두텁게 칠하지 않도록 注意해서 칠한다. 乾燥는 1시간.

5) 加硫고무는 고무풀만을 2회 칠하고 乾燥 1시간

6) 金屬과 加硫 고무의 사이에 0.5mm의 中間 고무를 불이거나 고무풀面을 틀을로 불여서 밸라붙인다.

7) 밸라붙이고 30分後 프레스에 넣어서 110°C로 3時間 加硫한다. 金型에 걸리는 壓力を 6kg/cm²가 되게 壓力의 調節을 한다.

8) 加硫後 고집어내어서 冷却할 때까지 20kg의 锤를 얹는다.

以上의 方法으로 100%良品이 얻어지나 技術의 重要한 것은 솔쓰는法, 케무록크나 고무풀을 불이는法 金屬面, 加硫고무面에 接着劑를 칠할 때의 入力方法, 칠할 때의 速度, 칠한 뒤의 솔의 分離 method 등에 細心한 注意가 必要하며 그것들을 틀림없이 實施하면 接着不良은 없다.

金屬과 고무와의 接着은 接着劑를 칠하는 方法에 따라서 良品으로도 不良品으로도 된다.

따라서 作業員의 訓練이 特히 必要하다.

6. 規格外製品

規格外製品이라고 하면 不良品으로서 去來上 納品이

不可能한것으로서 材料, 工質, 經費등 모든것이 水泡로 돌아가나 그 原因은 技術盲點의 과오를 犯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무製品은 使用條件을 充分히 調査해서 그 使用目的 을 滿足시킬 수 있을 것이 要望된다. 그 用途에 適應되게끔 技術者는 努力を 하고 있으나 規格外製品으로 判定되어서 去來上の 트러블이 끝이지 않고 있다.

그 問題點을 調査해 보면 技術의in 重要한 포인트를 看過하고 있는 點을 깨닫게 된다.

그 技術의 盲點에 對해서 例를 들어서 說明을 하면 高荷重, 高速回轉體의 配合上의 盲點이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現代 고무技術로부터 보면 常識의in 事項이지만 옛날에는 技術의으로 苦生을 한 時期가 있었음은 事實이다.

例를 들면 戰車에 使用되는 轉輪을 試作해서 回轉試驗을 行하면 溫度가 上昇해서 内部溫度는 200°C以上으로 되어 고무의 解重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試驗終了後 轉輪을 나이프로 中央部까지 切斷하면 풀 모양으로 된 고무가 切斷部로 부터 風船처럼 부풀어 올라서 빵꾸가나면 남아지의 分解고무가 同一하게 부풀어 올랐는 經驗이 있으나 原因은 當時 热傳導體를 多量配合하는 것에 不着眼했는 데 있다.

當時 優秀한製品을 分析하면 酸化亞鉛이 多量으로 檢出되는 것, 또 辨柄으로 생각되는 Fe_2O_3 으로 檢出되는 것, 또 辨柄으로 생각되는 Fe_2O_3 으로 檢出되는 製品이 있으며 그들은 共히 热傳導體로서 配合되어 있으며 多量의 酸化亞鉛을 配合하면 發熱은 規格值보다 낮으며 切斷고무面에도 異狀이 不認된다. 이것은 屈伸反復에 依하여 發生한 奄熱이 酸化亞鉛에 依해서 發散되기 때문에 溫度上昇은 적으로 使用目的에 適應한 製品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製紙用 프레스로우루, 高速印刷 로우루, 高速소리드타이어, 輪帶, 其他의 高荷重, 高速回轉體의 고무配合에 最低 50%의 酸化亞鉛을 使用하는 것은 現代의 配合術로서는 技術常識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모르고 酸化亞鉛의 慣用值 5%를 配合해서 애틀리온은 記憶이 있으나 이들도 技術盲點의 過誤를 犯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最近은 热傳導度에 對해서 質問을 잘 받는데 그 만큼 热傳導度에 關心을 갖는 技術者가 많아진 것이겠지요.

製品에 따라서는 热傳導度를 採用해서 技術의으로 檢討할 事項이 많다고 생각된다. NR, NBR, CR, SBR에서도 耐熱性 고무에는 酸化亞鉛을 慣用值 5%가 아닌 10~30%를 使用하는 것이 常識처럼 되어 있으나 热傳導度의 本點으로부터 생각하더라도 理論적으로 생각해서 效果가 있음을 使用結果로부터도 明白히 나타나 있다.

但 酸化亞鉛은 固體酸으로서 反應하는 點을 考慮해서 加硫曲線에 變化를 준다는 것을 考慮하는 것으로서 簡單히 使用하면豫期치 않은 技術盲點의 過誤를 犯하게 된다.

고무製品의 종류는 많으며 메이커는 專門의으로 長年의 經驗과 技術을 積んで서 問題 없이 製品을 納入하고 있으나 新分野의 고무製品을 만들었을 경우, 例를 들면 호오스 專門工場이나 신발類工場이 業種의 一部를 工業用品으로 轉換해서 紡績用의 링을 만들어도 使用不能의 判定으로返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고무의 硬度 物性值의 引張強度, 伸長, 치수의 規格에 합格해도 使用해서 紡績의 單糸가 끊어지면 單糸가 링의 回轉方向에 쳐지지를 않고 링에 실이 감겨져서 作業上支障이 생기기 때문에 用途에 適用되지 않기 때문이다. 靜電氣에 依한 現象으로서 專門外의 製品에 對해서는 優秀한 技術者도 技術盲點의 過誤를 犯하는 것으로서 電導性의 藥品을 使用하든가 除電劑를 配合한 고무가 아니고선 用途에 適合한 製品은 되지를 않는다.

即 技術의으로는 專門工場의 常識의 事項이 專門外의 業種의 技術者에게는 技術盲點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만큼 고무는 어려운 것이다.

規格製品의 物性值로서 硬度, 引張強度, 伸長이 指定되어 立會試驗에서 檢查에 합格하지 못하는 例를 자주들으나 이것은 材質을 決定할 때에 規格值의 10%增으로 材質을 採用했기 때문이다. 氣溫의 相違, 作業差混練 技術差등을 加算하면 差가 날 可能성이 있으므로 20%增의 數值를 採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去來上 問題로 되는 것은 納入製品이 規格에 합格되지 않고返品으로 되는 경우이다. 使用中問題가 생겨서 檢查해보니 硬度가 낮다. 耐油性이 나쁘다. 物性值가 규격보다 낮다等의 點을 指摘해서 不良品으로서返品으로 되는 경우를 자주들으나 오랫동안 生產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 材質을 補正하기 위해 少量의 軟化劑를 常識으로서 追加해서 試驗도 하지 않고서 作業을 繼行해서 그 뒤 作業改善을 할 때마다 藥品을 追加할 경우 약품을 갈경우는 있으나 規格值에 對해서 不合格으로 되는 것은 常識의으로 없다고 생각해서 作業하고 있는 點에 있다. 配合上 조금만 약품의 量을 같아도 作業성이 좋고, 不良品만 없으면이라고 하는 安易한 思考法이豫期치 않은 問題를 일으킨다.

確認을 하지 않고 推論으로 問題는 없다고 作業을 계속한 結果로서 小工場에 如斯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此種의 트러블로서 NBR의 다이어 후랄파킹이 장치된 時點에서 고무가 끊어져서 内部의 布層이 보여서 使用不能으로 納入品全部返品으로 된 경우는 作業성이

좋아지도록 고무를 改良을 加해서 能率生産이 되는 고무質로 變更한 생각은 나쁘지는 않으나 고무質의 物性值을 試驗도하지 않고 作業을 계속한 点에 있다. 假定과 確認을 해서 作業을 하면 問題를 일으키는 일은 없으나 常識으로 問題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技術盲點으로 되는 것으로서 問題를 일으켜서 物性值을 測定해도 無意味한 일이다. 그 트리뷴을 일으킨 고무는 引張強度, 伸長, 硬度는 規格值에 對해 훨씬 낮은 數值에 높랄 정도이다.

硬度가 来去上 問題로 되는 것은 納入品의 硬度가 야문적으로 CR材質에 가장 많으나 技術盲點은 CR 加硫 고무의 經時에 따른 硬度變化와 溫度差에 依한 硬度變化에 바른 數值을 알지 못하는 点에 있다.勿論 配合에 依하는 것이 CR加硫고무는 5°C의 變化에 依해서 硬度로서 1 變化하는 것과 硬度의 經時變化는 10日後 2, 20日後 3, 1個月後 4의 上昇을 생각하면 CR고무가 材質의으로 問題를 일으키는 일은 充分 理解되는 것으로서 CR配合에 對해서는 各材質에 對해서 溫度와 硬度의 關係 및 1個月間의 經時變化에 依한 硬度의 變化의 測定值를 갖고서 硬度를 생각하면 問題는 없다.勿論 CR에 對해서는 Hs65~70은 簡單히 생각해서 材質을 決定할 것이 아님이 理解될것으로 生覺된다. 60~70의範圍라고 해서 簡單히 생각하면 뜻밖의 失敗를 할 可能性이 있음을 認識해 둘 必要가 있다.

또 CR에 對해서는 問題點이 많으며 型物製品에 對해서 硬度가 80以上으로 되면 車上配合에서 希望硬度

가 얻어졌더라도 그대로 生產으로 옮기는 것은 注意해야하며 무우니이 値가 70以上이나 되고 加硫曲線의 10%加硫(160°C)가 1分前後처럼 動作이 速한 고무는 流動性이 나쁘며 融着不良의 要因으로 된다.

따라서 무우니이 値를 낮추고 스크오치時間은 늦추며 고무의 流動性을 좋게 하지 않으면 良品이 얻어지지를 않는다.

그처럼 製品에 따라서는 생각이 못미치는 盲點으로 되어서 問題를 야기하는 点을 생각하여서 반드시 確認을 하면서 作業을 하지 않으면豫想外의 失敗를 當하게 되는 것이다. 不良이 發生할 경우는 그 技術盲點은 賀인가에 對하여서 조사하여 그 盲點을 除外하면 不良은 解消되는 것으로서 理論的推論의 假定을 設定하여 그思考法에 과오가 없나 있나를 確認하는 方法으로 不良防止를 한다. 理論的으로 바른 技術에는 不良은 없다. 그것은 틀림없는 真實이다.

7. 後記

技術盲點의 一考察에 對해서 1974年 6月 20日, 6月例會의 講演의 要旨를 中心으로 收合한 것이나 構想의 으로도 系統的으로도 不滿足이나 다시 고쳐쓸 日數도 없고 해서 그냥 原稿를 쓴 것으로서 貴重한 紙面을 더럽힌點을 深謝할 뿐이나 한 사람이라도 共鳴하는 技術者が 있었으면 하고 衰心으로 祈念하는 바이다.

(1975年 4月號 日本고무協會誌)

◎ 協會 및 會員社消息

1. 東信化學(株)에서는 今般會社機構를 改編하고 5月 31日字로 人事發令을 하였는바 그 中의 一部는 다음과 같다,

管理理事 尹相述	營業理事 玄哲
生產理事 洪鍾鳴	企劃部長 金在根
總務部長 崔長漢	始興工場 運營部長 鄭明鎬
始興工場 副工場長兼 生產1部長 李海容	始興工場 副工場長兼 生產2部長 金瀅潤
永登浦工場 副工場長兼 生產部長 金董培	始興工場 工務部長 孫枝秀
販賣管理 課長 林鶴基	販賣促進 課長 李敏澈
營業1課長 (타이어地城販賣) 禹龍相	
營業2課長 (타이어特殊販賣) 白丞一	

營業3課長 鄭宇永
(스폰지製鍊)

2. 韓國타이어(株)에서는 ① 5月 10日 創立 36周年을 맞아 上午 9時 부터 本社에서 張善坤 社長以下 全從業員이 參席하여 記念式을 舉行했으며 上午 10時부터는 同僚들의 祝福裡에 社長主禮로 13雙의 從業員이 合同結婚式을 올렸다. ② 本社의 輸出部는 國家輸出促進政策에 呼應하여 綜合貿易商社로 出帆키 為한 晉星物產(株)의 타이어事業部로 6月 1日新設足され었다.

3. 三陽타이어(株) 서울事務所는 5月 2日 서울特別市中區 乙支路 1街 50番地 三星빌딩 7層으로 移轉됐다.

4. 大英商事(株)는 5月 31日 創立 11周年을 맞았다
(以上 會員社順位는 通報接受順)

5. 協會의 金理事長은 5月 20日 廉政刷新協調會 要請하는 便紙를 協會常勤任직원 家族에게 發送했다.

6. 協會와 會員社에서는 5月 22日(土) 漢陽칸추리를 템에서 元豊產業(株) 스폰서로 親善골프大會를 開催하여 和氣裡에 끝맞쳤는바 이 날 諸氏의 戰績順位는 다음과 같다. 優勝 朴祥求 準優勝 李春福 3等 金甫炫